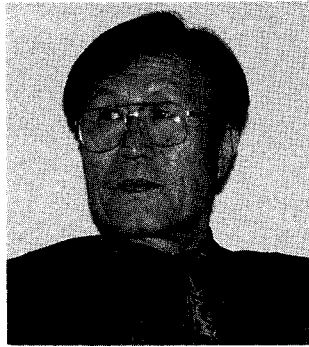


갈잎공급 이대로 좋은가



안무현/서리벌사슴목장 대표

양록농가에서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는 월동용 조사료 공급시기가 다가왔다. 이맘때 쯤이면 농가에서 겨울을 나기 위하여 조사료 확보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게 사실이다. 조사료를 갈잎으로 할지, 알팔파로 할지, 그리고 구입량은 얼마로, 어느 업체에 신청해야 할지 여간 신경쓰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 생산된 사료라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겠지만 전부가 수입산에 의존하다 보니 제때에 공급받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언제까지 농가에서 월동용 조사료 때문에 골머리를 썩혀야 하는지 생각만해도 가슴이 답답해 온다. 이번 기회에 월동용 조사료에 대해 그동안 보고 느껴온 바를 피력해 보기로 하겠다.

조사료중 알팔파 큐브나 베일은 그동안 농가에서 공급받는데 그렇게 장애를 받지 않았다. 광활한 초지에서 자란 알팔파는 전량 기계

에 의해 수확되고 가공되어져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급시기나 품질에 문제될게 없었다. 가격만이 농가들의 관심대상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본인은 알팔파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갈잎은 다르다. 사람이 일일이 채취하고 날씨의 변동에 따라 품질이 천차만별인데다 중국인의 신의없는 상술로 공급시기와 가격도 농가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국내 양록농가에 갈잎이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0년부터다.

초창기에 5천여톤에 불과한 갈잎 공급량이 현재는 약 4배 증가된 2만여톤에 달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0억원에 이른다.

당연히 갈잎을 들여와 공급받는 농가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갈잎을 판매하는 중국인의 상술에 우리가 놀아나는 꼴이다. 갈잎 공급업자끼리의 경쟁의식도 품질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했다. 공급량을 선계

약한 업체를 무시하고 웃돈을 얹어주며 손쉽게 수입하려는 물상식한 업체가 존재한다는건 우리의 수치다. 웃돈을 얹어 준다고 계약을 손쉽게 파기하고 제3자에게 물건을 넘겨주는 중국인의 파렴치한상술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품질의 개선은 고사하고 갈잎속에 커다란 돌덩어리를 비롯하여 온갖 잡쓰레기를 한데 넣어 우리에게 보냈다.

이런 고질적인 병폐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돼왔다. 올해에는 얼마나 개선될지 미지수다.

무역관행상 품질에 하자가 있다면 크레임을 걸어 중국인들에게 본패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중국과의 무역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것 같다. 공급업자끼리의 치열한 물량확보가 낳은 비극이다. 우리업자끼리의 경쟁이 지양되지 않는한 품질개선은 백년하청이지 않나 싶다.

협회 차원에서 품질개선을 위해 통관절차를 엄격히 하도록 정부당국에 건의할 의향도 없지 않다고 하나 그렇게 되면 당장 농가들의 사슴먹이가 바닥나 아우성일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더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이미 공급시기가 임박한 만큼 내년 초쯤에나 갈잎 공급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협회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갈잎을 공급하는데 또하나 맹점은 중국의 기후다. 지난해에 엄청난 흉수로 갈잎의 품질이 형편 없었으며 공급시기도 지연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올해에도 중국에 심한 물난리로 갈잎 공급이 여의치 않을것 같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다. 8월 이전에 채취한 갈잎은 워낙 질이 떨어져 수입이 어려울 것 같고, 8월 이후에 채취한 갈잎이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다는게 중국을 다녀온 수입업자의 우려섞인 목소리다.

올해에도 물량을 확보하여 적기에 공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쯤에서 월동용 조사료로 각광받고 있는 「갈잎」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봐야 할것 같다.

정말 사슴먹이로 갈잎을 능가할 만한 조사료는 없겠느냐는 것이다. 언제까지 중국에서 갈잎을 들여와 사슴을 기르는 양육인이어야 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중국의 갈잎을 믿고 사슴을 기르려고 하지는 않았지 않는가. 갈잎이 사슴사료로 최고라는 고정관념을 버릴때가 아닌가 한다. 갈잎 공급업자의 과대포장에 의해 우리 농가가 갈잎을 맹신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히 판단할 때인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갈잎만으로 사슴을 기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사슴은 중간채식형 동물로 목초류, 광엽초류 및 잡관목류를 고루 잘 섭취한다는게 학계의 주장이다. 사료 선택의 폭을 넓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조사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안이하게 사슴을 사육하겠다는 관념을 버리고 좀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료포를 조성하고 손수 칩닝쿨과 아카시아잎, 참나무잎, 도토리잎, 뽕잎, 콩깍지 등... 주위에서 이용할만한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래도 힘이들어 자급하는데 도저히 역부족이라면 그때서야 알팔파나 갈잎을 소량만 수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제 양육인들도 자주적인 양육업을 실현할 때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갈잎이 지속적일 수 없으며 가격 또한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다.

농가들이 갈잎을 원하는 한 수입은 계속될 것이지만 한국양육협회는 외산갈잎 품질 개선과 대체사료 개발에 적극 나서야할것이다.*